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2012. 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2012. 1

최진욱 (북한연구센터 소장)
박형중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임강택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임순희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한기범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전반적 특징	1
II. 2011년도 평가	3
1. 정치	3
2. 경제	3
3. 사회·문화	4
4. 군사	4
5. 대남	5
6. 대외	5
III. 2012년도 과업	7
1. 정치	7
2. 경제	7
3. 사회·문화	9
4. 군사	10
5. 대남	11
6. 대외	12

IV. 2012년도 부문별 전망	13
1. 정치	13
2. 경제	13
3. 사회·문화	14
4. 군사	15
5. 대남	16
6. 대외	17
V. 정책적 함의	19
부록.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22

I. 전반적 특징

- 전반적으로 김정일 유훈을 앞세우며 김정은을 중심으로 내부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접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
 -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영원한 단결의 중심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곧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다”
- 올해 신년공동사설 구성은 김일성 사망 다음해 1995년 신년 공동사설처럼, 김정일에 대한 애도 표시와 함께 영도 업적 거론 → 김정은 중심의 결속 강조 → 지난해 업적 평가 → 올해 과제 제시의 순서로 구성하였고
 - * 1995년에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 형태로 신년사 발표를 시작하였고, 그해에는 1994년 김일성의 신년사 육성을 동시에 내보냄
 - 김정일에 대한 애도 표현이나 김정은 중심의 결속 강조도 당시처럼 “최대의 손실, 가장 큰 슬픔,” “령도자 두리에 일심단결,”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등 거의 유사한 수사와 비중으로 표현
 - 김정은을 당중앙위원회의 수반, 혁명무력의 최고령도자로 호칭하며 절대 충성을 다짐.
- 강성대국의 구호가 현저히 감소하고 강성부흥, 강성국가 구호가 이를 대신하는 등 수세적인 태도를 보임.
 - 강성대국 구호는 2010년 16회, 2011년 19회에서 올해 5회로 급감

-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은 상징적·장기적 목표로 처리하는 기법을 사용
 - 김일성 탄생 100돌 및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와 관련한 의의 및 중요성보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위대성과 업적 찬양, 유훈 관찰 등을 역설
- 2011년도 신년 공동사설과 비교하면, 작년에는 인민생활향상 → 당의 영도적 역할 → 군(軍)건설 위업 → 대남 → 대외 부문 순서로 과제를 제시했는데, 올해에는 군사문제가 당의 역할 보다 앞서 제시되는 순으로 바뀜.
- 군부의 선군혁명에서의 중추적 역할과 강성국가건설에서의 돌격대 역할을 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은 김정일 사후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를 안정화시키고 최우선 과제인 경제문제 해결에도 군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정치사상 강화로 체제단속에 집중하면서도 ‘인민생활향상’을 우선과제로 설정하여 주민들의 불만 최소화로 체제안정 도모
 - 중앙당의 기능과 역할확대로 김정일의 지도력을 당조직으로 보완
- 대남정책 기조는 당국간 대화를 외면한 채 통일전선투쟁 선동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2010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한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나, 2011년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유화기조는 없어지고 반정부 투쟁 선동에 치중
 - 대외적으로 최소주의로 나갈 것을 암시함.

II. 2011년도 평가

1. 정치

- 김정일의 업적을 높이 평가
 - 김정일은 “걸출한 사상이론가, 희세의 정치원로, 불세출의 선군 영장”이고 “절세의 애국가,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 김정일의 영도로 강성국가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발생
 - 김일성 출생 100돐 기념사업을 성대하게 거행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정력적으로 현지도
- 군대와 인민의 영도자와 당에 대한 충심이 높이 발휘되었음.

2. 경제

- 김정일의 영도로 “강성국가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서, “인민생활대진군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21세기 경제강국의 강력한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주장함.
 - 희천발전소를 비롯하여 2012년 축전을 기념할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건설되었고,
 -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수많은 경공업공장들이 개건 완비되었으며, 현대화된 축산, 양어, 대규모 과일생산기지들이 마련되었다고 역설함.

- 이와 함께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 룡림과 대흥, 회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선경마을’을 건설했다고 강조함.

3. 사회·문화

- 김정일 위원장의 구상에 따라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룡림, 대흥, 회령을 비롯하여 곳곳에 ‘사회주의선경마을’이 생겨났다고 평가함.
-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와 같은 기념비적인 무대예술작품들이 창조되고 군중예술의 새로운 개화기가 펼쳐졌다고 평가함.

4. 군사

- 당정치사업 강조로 군대의 정치·사상적 통제 강화
 - 혁명적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문화로 사회를 선도하는 본보기 강조로 선군혁명 영도체계 강화
- 김정일 정권 보위 및 사회주의 제도·영토수호를 위한 인민군대의 군기확립, 군민단결, 공격정신 등을 강조
 - 실전과 같은 훈련, 멸절의 투지, 고도의 격동상태 유지, 백두의 공격정신, 즉시적이고 무자비한 섬멸전 등 강조
- 국방공업 강조

5. 대남

- 작년 신년 공동사설에서의 “북남사이에 일련의 인도주의적 사업들이 진행” 등과 같은 남북관계를 평가하는 부분이 없어지고 비판적 논조로 일관함.
-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위한 노력으로 시종일관’했으나, 남한 당국이 “친미사대, 동족대결, 북침전쟁책동”으로 역행(逆行)했다고 책임 전가
- 특히 김정일 사망과 관련 남한 당국이 “민족의 대국상을 외면하고 조의표시를 각방으로 방해”해서 “남조선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여 조문문제로 남한국론이 크게 분열되고 있는 것처럼 과장
 - * 1995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남한 당국이 “조의례절을 지킬 대신 민족의 아픈 가슴에 총부리를 돌려댔다”고 주장

6. 대외

- 대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로 이를 이겨냈음을 과시함.
 - 지난해 국제환경이 전례없이 복잡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김정일의 중국과 러시아 방문이 세계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 작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자랑한 실험용 경수로 건설과 원심분리기 시설에 대한 언급이나 미국과의 두차례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음.
 - 비핵화, 6자회담, 미국 등에 대해 무언급

Ⅲ. 2012년도 과업

1. 정치

- 김일성, 김정일을 이어 김정은의 영도를 따를 것을 강조
 - 수령의 혁명역사, 장군의 선군혁명 영도사가 변함없이 흐르도록 해야

- 2012년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혁명적 대축전’을 치르기 위한 ‘총진군’을 해야 함.
 - 2012년 강성국가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해야 함.

- 2012년 사상과 단결의 위력을 발휘해야 함.
 - 2012년도 기념사업 진행과 완수를 위한 노력에 충정을 바쳐야 함.
 - 김정일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함.

2. 경제

- 경제부문의 과업은 “우리 당의 웅대한 강성부흥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는 기치 하에서 부문별 과제가 제시됨.
 - 또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추진 과제는 김정일의 ‘강성부흥구상’

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강령적 유훈’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함.

- 가장 대표적인 유훈으로 강조한 것은 “함남의 불길을 따르자”는 것으로, 여기에는 ‘공격전의 기상,’ ‘민족자존의 정신,’ ‘선구자의 기질’ 등이 구현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을 ‘강성국가건설의 주공전선’으로, 경제부문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함.

-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 해결이 “강성국가건설의 초미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 정보당 알곡수확량을 획기적으로 증대, 농산과 축산을 결합하는 고리형 순환생산체제와 유기농법 도입, 영농물자와 설비 제때 보장 등을 강조함.

○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을 통해서 인민생활의 개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점은 최근 신년사설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당 조직들의 전투력과 일군들의 혁명성은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검증된다”고 역설함으로써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당 조직의 책임을 강조하고 분발을 촉구한 부분이 예전과 구별되는 부분임.

○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에 대해서는 전력문제의 선차적 해결, 석탄 증산, 주체철 생산능력 제고, 철도수송능력 향상, 주체비료생산체제 강화 등을 강조함.

- 전력문제 해결방안으로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노력 지속을 강조함.

- ‘새 세기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경제적 비약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함.
 - 이를 위해 CNC공작기계생산에서 발전을 이룩한 ‘련하’의 개척정신과 창조기풍을 따라 배울 것을 강조
- 국토관리와 도시경영부문에서는 평양시 꾸미기사업이 김정일의 유훈사업임을 강조함.
 - 만수대지구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 건설을 다그치고, 도시경영사업과 원림녹화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평양전성기가 펼쳐지게 하자고 역설함.
- 이번 신년사설에서 나타난 특징은 대외경제관계부문과 경제관리부문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점임.
 - 다만, 앞에서 김정일의 유훈 관철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정책에서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점에 비추어 당분간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3. 사회·문화

- 과학연구기관들이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중요부문 기술공학발전에 주력하며 세계적인 연구성과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함.
 - 과학기술발전에서의 주체 확립, 집단주의 구현, 과학기술과 생산 실천 결합, 그리고 과학기술인재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과학연구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어야 할 것 등을 강조

- ‘사회주의 문명국’으로의 발전, 강화를 촉구함.
 - 교육부문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형식, 조건과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나아가야 함.
 -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창작·편성·형상을 ‘우리 식으로 할 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명작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함.
 -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체육을 생활화·습성화함으로써 체육열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함.
-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분쇄하고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 것을 역설함.
- 근로단체의 역할 및 임무 수행 강화를 촉구함.
 - 청년동맹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을 참다운 선군청년전위로 육성
 - 여맹조직들은 여맹돌격대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혁명적이고 고상한 생활기풍 조성에 적극 이바지

4. 군사

- 선군정치 기치 하 국방력 강화 의지 피력
 -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기둥, 주력군, 강성국가건설의 주력군으로 표현함으로써 선군정치 재강조
- 1차적으로 군 정치사업 강조로 김정은 영군체계 확립과 군대를 통한 체제보위 노력 강화
 - 김정일 군 건설 업적 옹호고수로 선군 유훈 이행→ 당정치 사업

강조로 김정은 영군체계 확립→ 김정은 결사옹위체계 공고화

- 결전준비태세 유지, 인민을 위한 군민일치 사상 구현을 통한 군대강화
- 국방공업의 잠재력 최대한 발휘
 - 핵무장력을 포함한 군사력 유지 및 강화 시사
 -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를 당연시 하는 분위기 유지

5. 대남

- 올해 신년공동사설에 나타난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는 과거 김일성 사망 직후처럼, 남한당국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한미 국가간 이간, 남한 당국과 시민 혹은 보혁세력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시사
- 금년 대남과제로 5돌을 맞게 되는 ‘10·4선언’ 이행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외세공조,’ 대북 ‘적대정책,’ ‘북침전쟁연습 책동’ 등 3가지 대북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 전개를 선동
- 반면 예년(2011년 신년공동사설 등)에 “대화와 협력사업은 적극 추진해야한다”거나 “남조선 당국은 대결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등 대화와 협력에 대한 주문과 남한당국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가 사라짐으로써 작년 연말의 ‘상종 불가’ 선언(12.30 국방위원회 성명)과 같은 맥락에 있음을 시사

6. 대외

- 5년만에 “한반도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인 미군철수”를 다시 주장했는데, 김정일 사망 상황에 대응한 한·미 간의 견고한 군사협력을 의식한 반응 수준인 것으로 보여짐.
- 상투적으로 반복하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 것”임을 강조함.

IV. 2012년도 부문별 전망

1. 정치

- 2012년도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되는 여러 사업을 완수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보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함.
-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동일시를 강조하고, 김정은의 영도가 곧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이자 뜻임을 강조할 것임.
- 김정일의 유훈 관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김정일의 후광을 빌리는 방법을 사용하여 지도부와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김정은의 통치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

2. 경제

- 2012년을 강성국가 진입의 해로 선언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김정일의 유훈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임.
 - 다만, 김정일 애도기간이라는 점을 이유로 대대적인 축하 행사는 자제함으로써 주민들의 반발과 대외적인 거부감을 줄이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생활 향상에 주력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위해 식량문제의 해결과 전력 생산 증대 및 공급 확대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강성국가 건설이 김정일 유훈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공식경제부분의 생산활동 증대를 위한 집단동원체제를 지속적으로 가동할 가능성이 있음.
 - 이를 통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계획경제체제를 점차 복원해 나가고자 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경우 시장활동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화하자고 할 것으로 전망됨.
-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외경제관계에서는 보수적이고 관망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지원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같은 맥락에서 남한과의 경제관계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임.
- 경제관리부분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안착된 이후에야 새로운 정책기조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됨.

3. 사회·문화

- 사회·문화 부문에서도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 및 ‘최고영도자’ 김정

은의 이상화를 위한 작업들이 한층 더 본격화될 것임.

- 시와 소설, 가요 등 예술 작품의 대량 창작 및 배포를 통해 ‘최고 영도자’ 김정은의 위대성과 권위를 높이는 등 이상화 작업을 적극화하며, 예술작품들에서는 특히 ‘백두혈통’의 위대성 및 혈통승계의 당위성, 김일성·김정일과의 동일시 등을 통해 세습 후계체제의 정당성 및 정통성 강화를 도모

- 북한당국은 ‘재스민 혁명’의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고 각종 IT기기에 대한 규제 조치 및 사상교양을 보다 더 확대·강화할 것임.
- 체제수호 및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 사상교양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며 청년동맹과 여맹 조직을 비롯한 근로단체의 조직생활에 대한 통제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지속적인 경제난과 외부사조·문물의 유입에 따른 주민의식 변화 및 체제 이탈 행위 방지
- 군중예술활동 및 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생활고에 시달리며 불만이 쌓인 주민들을 무마하는 데에도 주력할 것임.

4. 군사

- 선군정치 기치 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 지속
 - 핵무기/장거리 미사일 개발 지속으로 강력한 군사력 시위와 함께 첨단과학 기술 발전을 과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선군정치 강조 속에서도 군보다 당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군대 및 군부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크게 강화하게 될 것임.
 - 군부의 정치적 기능과 역할 축소 가능성
 - 김정은의 군 장악을 위해 군대에 대한 정치사상 통제 강화
- 대남 군사도발 감행으로 김정은의 영군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과시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 대남 군사도발에 앞서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강행으로 김정은의 새로운 군사지도권을 과시하고자 할 가능성 상존

5. 대남

- 연말 ‘국방위원회 성명’(12.30)을 통한 현 남한정부와의 ‘상종불가’ 선언에 이어 이번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남한정부 외면’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당국간 소강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기본적으로 강성국가 진입이라는 ‘경축’ 분위기보다, 김정일 사망에 따른 ‘근신’ 분위기가 지배할 것이므로 대남 대화수요(식량 확보 등)가 감소
 -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한 남한당국의 유연성 발휘를 대북정책 ‘만회’ 움직임으로 감지하고, 내부적으로 당분간 대남 ‘강경입장 고수’로 결론지었을 가능성(북한, 12.30 성명을 통해 “우리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고 주장)
- 반면에 이번 신년 공동사설의 대남논조가 반정부 통일전선투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의 총선·대선을 앞두고 남한정부의 대북정책 등 집권 5년에 대한 비판활동을 한층 강화, 남한 사회내부 국

론분열을 피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정은의 대화·협상을 통한 남북관계 관리 능력은 검증되지 않은 반면, 그의 '군사적, 공작적' 행태 선호성향이 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대남 위협·갈등 증대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우려
- 또한 남한 당국과 민간을 분리하는 방식을 취하여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남한 사회내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유도

- 특히 작년의 '청와대 불바다'에 이어 연말 '국방위 성명'으로 다시 '북수의 불바다' 운운하며 위협한 만큼, 북한이 내부분쟁 집중을 위해 대남 수세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방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
 - 대남 긴장조성을 통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내부 결속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남한 사회내 이명박 대북정책 '실패론'을 확산
 - 김정일 사망 100일(3월말)과 김일성 생일 100돌(4.15) 등 내부 정치행사를 치른 4월말 이후 시점에 북한의 돌출행동 등 대북 경계가 특히 필요

6. 대외

-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6자회담 재개노력 보다 대외적으로는 움츠러들 것으로 보임.
-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6자회담 재개가 논의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보다는 평화체제가 회담의 선결 주제임을 강조한 것임.

- 미국이 요구하는 6자회담 전제조건인 우라늄 농축 잠정 중단 등에 대해서도 허용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기합의된 24만톤의 영양 제공이나 3차 미북 고위급회담은 굳이 거부하지 않을 것임.

V. 정책적 함의

- 김정일 업적 강조로 김정일 위대성 제고→ 세습체제 정통성 강화→
김정은 지도체제 공고화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기존의 대내외 정책 유지
 - 김정은 세습체제 정통 확립을 위한 대내 정치적 통제조치 강화가 예상되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남비난 및 위협 등으로 한반도 긴장조성에 치중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건설 활동에 필요한 대남 경제적 지원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부분적 남북대화 준비가 요구됨.
 - 미북대화,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북대화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음.

- 대남차원에서는 올해 총선과 대선을 위해 ‘전쟁과 평화’라는 이분법으로 남한여론 분열을 적극 획책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 주한미군철수 화두에서 출발, 이에 대한 이분법적 여론분열의 도모
 - 주한미군철수를 정당화하는 차원의 대남도발 예상

- 2012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은 정책 전반에 수세적 기조를 보이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북한당국은 새로운 김정은 체제 안착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대응은 ① 북한상황 관리, ② 도발 경계, ③ 국론결집, ④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한 ‘관리 모드’로 나아가 할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이 대남관계와 대외적으로 최소주의로 나갈 경우 우리의 정책적 유연성은 한계가 있음.

- 그러나 북한이 김정일 사후 위기의식을 느끼며 민감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안심시킬 필요는 여전함.
 - 당국간 대화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나 민간이나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는 것이 필요
-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력의 길은 열어놓되, 당장의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변화를 기다린다는 장기적이고 큰 포석으로 담담하게 접근
- 북한의 반복적인 ‘상종 거부’ 주장은 권력 기반의 취약성 으페 및 ‘애도’ 분위기 훼손 방지라는 내부용이며, 우리의 대북정책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대남 압박차원의 행태이므로 이에 대한 조건 반사적 반응은 불필요
 - 그보다는 북한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있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 정권의 속성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간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
 - 특히 김정은의 리더십은 김일성·김정일보다 정책적 합리성·균형 감각은 부족할지라도 개방성·수용성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김정은이 과거의 반목과 대결을 모방하기보다는 대화와 협력의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단히 제공할 필요
 - 따라서 북한의 거부적 태도에 불구하고 당국 간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활성화 문제 같은 준 당국차원의 현안 해결을 추진하면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최근 들어 정부가 보이기 시작한 유연성의 연장선에서 대응

- 그러나 동시에 북한이 여전히 ‘선군’을 강조하는 가운데 김정은이 군사적 리더십에 치중하고 있고, 내부 결속 도모차원에서 정세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
- 특히 북한이 우리 선거정국을 틈탄 국론분열 책략이 강화될 것이므로, 올해에는 북한을 상대로 한 정책 못지않게 장기적인 대북정책 방향 정립과 함께 국내적인 합의기반을 다지는 일에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음.
- 한편 남북관계와는 달리 북한의 대미접근은 기존의 대화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의 한미이간 책동 혹은 과거 김영삼 정부 시기와 같은 국내적인 ‘통미봉남’ 우려가 재연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미정책 공조가 필요함.

부록.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발표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피눈물 속에 2011년을 보내고 새해 주체 101(2012)년을 맞이한다.

해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축원의 인사를 드리고 새해의 진군길에 오르는 것은 우리 인민의 오랜 전통이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태양의 모습은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의지를 안겨주는 승리의 기치였고 정신력의 원천이었다. 지금 우리의 천만군민은 크나큰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강성부흥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에 우리가 천만뜻밖에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영결하게 된 것은 5천년 민족사에서 최대의 손실이었다고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큰 슬픔이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주체혁명 위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희세의 정치원로,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헌신으로 혁명적 생애를 수놓아 오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

버이이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심으로써 아버지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되고 백두의 혁명전통이 견결히 옹호 고수되었으며 우리 당과 군대의 위력,나라의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오르고 반만년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민족번영의 대전성기가 펼쳐졌다.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던 시기에 아버지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정치군사적,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에 이룩하신 최대의 공적으로 빛나고 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얼마나 위대한 령도자를 민족의 태양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혁명하여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고 있으며 김정일동지의 념원과 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지난해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로 강성국가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난 승리의 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선군대고조의 승리의 포성이 울리는 크나큰 경사로 가장 성대하게, 가장 의의깊게 맞이하려는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2012년의 자랑스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하여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민적인 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였다. 혁명적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강성대국건설의 주요전구들과 최전연초소들, 온 나라의 방방곡곡을 종횡무진하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주체100년사가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력사로 빛나게
결속되게 되었다.

지난해에 인민생활대진군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21세기 경
제강국의 강력한 토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에 의하여 새 세기 산업혁명의
봉화가 타올라 우리 경제가 지식경제형강국건설의 길에 들어서게 되
였다. 희천발전소를 비롯하여 2012년의 대축전에 드리는 기념비적창
조물들이 도처에서 일떠서고 새로운 대진군의 기치인 함남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 속에서 수
많은 경공업공장들이 개건 완비되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새 세기 표
본으로 되는 현대화된 축산, 양어, 대규모과일생산기지들이 일떠선
것은 우리 당의 강성부흥 전략이 낳은 위대한 결실이다. 오늘 우리는
승리자의 커다란 긍지를 안고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 전환적 계선
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성있게 말하게 된다.

나라의 전반적 면모가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되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웅장화려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룡림과
대흥, 회령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 사회주의선경마을이 생겨났
다.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와 같은
기념비적인 무대예술작품들이 련이어 창조되고 군중예술의 새로운
개화기가 펼쳐졌다.

지난해에 위대한 당을 따라 끝까지 혁명을 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풍모가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되었다.

정세는 긴장하고 복잡하였지만 령도자의 발걸음에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민심은 언제나 순결하고 변함이 없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추모하는 애도기간은 뜻과 정으로 맺어진 어버이장군님과 우리 인민의 혈연적紐대는 영원히 변함없는 가장 억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천만군민이 크나큰 비분을 안고 흘리는 눈물은 그 어떤 가식도 모르는 순결무구한 단결의 눈물이며 이 세상 끝까지 당을 따르려는 불타는 맹세의 눈물이다. 가장 숭고한 도덕 의리심을 지닌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 품모는 적들을 전률케 하고 온 세계를 경탄시키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강화 발전시키신 불패의 당과 군대, 국가가 있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이신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대를 이어 령도자를 충직하게 받드는 훌륭한 인민이 있는 한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것, 이것이 새 진군길에 들어선 우리 모두가 지니게 되는 철의 진리이다.

올해 주체101(2012)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강성부흥구상이 빛나는 결실을 맺게 되는 해이며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장엄한 대진군의 해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은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적진군의 계속이다. 위대한 수령님 따라 시작하고 장군님 따라 백승떨쳐온 우리 혁

명을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영원한 승리로 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새 100년 대진군의 희망의 표대는 백두산위인들의 위대한 혁명사상이고 필승의 보검은 백두령장들의 담대한 배짱이며 공격방식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감으로써 수령님의 혁명력사,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가 변함없이 흐르게 하여야 한다.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돛은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전진하는 조선의 국력을 떨치는 중대한 계기이며 하나의 사상, 하나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조선혁명의 확고부동한 계승성을 과시하는 혁명적대축전이다. 우리는 올해를 위대한 향도의 당을 따라 대를 이어 대고조력사를 계승해나가는 장엄한 총진군의 해로 빛내여야 한다.

지금 우리 앞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2012년까지의 력사적 단계의 목표를 기어이 달성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는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이것이 올해에 전당, 전군, 전민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다.

우리의 정치사상적 위력, 단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김일성조선의 첫째가는 국력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사상의 위력, 단결의 위력이다. 2012년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을 따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며 다져온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일심단결의 해, 불타는 충정의 해이다.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이어받은 김일성동지의 후손들이며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이다. 절세의 위인들을 영원한 어버이, 영원한 스승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이 얼마나 숭고한 도덕관을 지닌 인민인가를 온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높은 정치사상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사업에 최대의 충정을 바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업적과 유훈은 우리가 영원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생명선이며 혁명의 만년재보이다. 우리는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혁명유산을 굳건히 고수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이 길에서는 절대로 변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끌어 오신 사회주의길이 가장 정당한 길이라는 투철한 관점, 누가 뭐라고 하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려는 원칙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의 일심단결을 대를 이어 계승되는 가장 공고한 단결로 끊임 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영원한 단결의 중심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곧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다. 전당, 전군, 전민이 성새, 방패가 되어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투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령도자와 발걸음을 맞추어나가는 진실한 인간, 령도자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참된 동지가 되어야 한다.

우리 당의 웅대한 강성부흥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해에 전당, 전국, 전민이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와 함남의 불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킬 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 유훈은 강성국가건설의 현 실태와 우리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명철하게 내다보시고 밝혀주신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으로 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를 지켜 장군님의 강성부흥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 모든 힘과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야 한다.

함남의 불길은 2012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기치, 새로운 전환의 기치이다. 함남의 불길에는 당이 준 과업을 최단 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해제끼는 완강한 공격전의 기상, 제힘으로 세계에 솟구쳐오르려는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 자기 고장, 자기 일터에서

강성부흥의 대문을 남 먼저 열어제끼려는 선구자의 기질이 구현되어 있다.

강성국가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 함남의 대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 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이 커다란 은을 내게 하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인민의 기호에 맞고 인민의 인정을 받는 질 좋은 경공업제품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우리 나라의 자원과 원료원천으로 해결하며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즐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현 시기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초미의 문제이다. 오늘 당 조직들의 전투력과 일군들의 혁명성은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검증된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별방지대이건, 산간지대이건 어디서나 알곡 정보당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농산과 축산을 결합하는 고리형 순환생산체계와 우리 식의 유기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농업생산목표수행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설비들을 수요대로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가금기지들, 대규모과수농장들과 양어기지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은 함남의 불길따라 새로운 100년 대진군을 다그치기 위한 돌파구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긴장한

전력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며 이미 있는 발전소들의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여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화력발전소와 화학공장, 금속공장들에 필요한 석탄을 보장하는데 힘을 집중하며 새 탄밭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주체철 생산능력을 더 높이고 우리의 연료에 의한 고온공기연소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압연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야한다. 철도부문에서는 나라의 철길을 일신시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철도수송능력을 높이고 철도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주체비료생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그 생산능력을 부쩍 높이고 비날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화학섬유, 합성수지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새 세기 산업혁명은 최첨단돌파전으로 우리 식의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우리 당이 내세운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전략적로선이다.

우리는 최신식CNC공작기계생산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련하의 개척정신, 련하의 창조기풍으로 전반적 기술장비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워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체의 새 기술,새 제품개발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우리 경제의 면모를 기술집약형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 기초기술과 중요부문 기술공학발전에 더 큰 힘을 넣으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과학기술 발전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집단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실천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나라의 귀중한 재사들인 과학기술인재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과학연구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어야 한다.

우리 조국을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문명을 따라 앞서자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였고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형식, 조건과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나가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창작도 편성도 형상도 우리 식으로 할 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는 명작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대고조의 벽찬 현실에 발을 붙인 생동하고 통속적인 군중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청년들과 인민들이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더 잘 갖추어주어야 한다.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고 체육을 생활화, 습성화함으로써 부풀어 오른 체육열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가장 우수한 우리의 문화와 도덕, 우리 식의 생활양식을 활짝 꽃피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분쇄하고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림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건전한 분위기가 차 넘치게 하여야 한다.

평양시의 면모를 일신하는 것은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이다. 만수대지구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다그치고 도시경영사업, 원림록화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선군시대 새로운 평양전성기가 펼쳐지게 하여야 한다. 도, 시, 군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게 도시형성과 건설을 진행하며 거리와 마을을 결정적으로 개명시켜나가야 한다.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기둥, 주력군이며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 조선인민군창건 8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인민군대에서는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모든 군사정치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영웅적기상과 불패의 전투력을 힘있게 떨쳐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 장병들과 함께 계신다는 억척불변의 신념과 숭고한 도덕 의리심을 지니고 김정일동지의 군건설업적을 총대로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전군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김정은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천만자루의 총, 천만개의 폭탄이 되어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주체의 군건설위업이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선 오늘 인민군대에서는 전군에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당정치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며 전군에 김정은동지의 명령지시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선군의 총대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녕이 있고 강성국가건설의 승리가 있다. 인민군대에서는 《훈련도 전투다!》라는 구호높이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지휘관들과 군인들을 맡겨진 작전전투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일당백의 싸움군, 조국통일의 결사대로 준비시켜야 한다. 적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감히 건드린다면 즉시에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고 조국을 통일할수 있게 만단의 결전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부대지휘관리를 강화하고 군기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드세계 내밀어 전군에 강철같은 군사규률과 정규화적 면모, 고상한 도덕생활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중대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모든 중대들을 쇠소리 쟁쟁한 전투대오로, 병사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정든나의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올해를 인민을 위한 해로 정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군민일치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단숨에》의 기상을 높이 떨치며 불가능을 모르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돌격속도, 일당백속도로 천년, 만년이 가도 지워지지 않는 빛나는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면불휴의 선군혁명령도로 튼튼히 다져주신 국방공업의 거대한 잠재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고 강성부흥의 새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한 결정적 담보는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것이다.

지금 우리 당과 혁명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시기에 놓여있다. 오늘의 현실은 모든 당건설과 당 활동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려는 백두의 행군정신, 계속혁명의 정신으로 철저히 일관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 사업에서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은 오늘도 앞으로도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전당을 령도자의 뜻을 무조건 따르려는 하나의 의지가 관통된 순결한 조직사상적전일체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당 조직들은 당의 군중로선의 요구대로 민심을 틀어쥐고 군중과의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대중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에 맞게 당 사업을 심화시킴으로써 아버지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올해에 우리 당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의 위대성이 힘있게 과시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을 실천으로 꽃피워나가는 당 조직이 가장 힘있는 당 조직이다. 각급 당 조직들은 함남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새 세기 산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강행군정신으로 살며 김정일동지의 강행군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도록 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대고조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지휘능력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일군들에게 중요한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의도를 가장 신속하게, 가장 철저하게 관철해나가는 인민군대 지휘관들의 전투적 기질을 적극 따라배우는 것이다. 당이 결심하면 지체없이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는 일군, 아무리 어려운 투쟁과 업도 립체전으로 와닥닥 해제끼는 일군, 무슨 일이나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소한 손색도 없이 만년대계로 해놓는 일군이 오늘의 대고조시대가 요구하는 일군이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 이것이 위대한 당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우리 일군들의 실천의 구호, 량심의 구호이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는 높은 자각, 모든 사업을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전개해나가는 확고한 관점, 자기 당성을 인민 앞에 검증받는다라는 허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

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의도를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

천만대중의 정신력을 천백배로 발양시켜 나가는 것은 올해 대진군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열쇠이다.

대중의 정신력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이 철의 신념을 안고 남들이 보란듯이 최첨단설비들을 제 힘으로 만들어낸 함남의 정신력, 함남의 실천력을 구현해나가야 한다. 도처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대중운동과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근로단체들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는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을 조선혁명의 년대기마다에서 높이 발휘된 기적과 혁신의 전통, 혁명적 락관주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나가는 참다운 선군청년전위로 키워나가야 한다. 청년들은 《조선청년행진곡》을 높이 부르며 강성대국건설의 격전장마다에서 위훈을 떨치고 청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선군시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 녀맹조직들은 녀맹돌격대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좋은 일하기 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온 나라에 혁명적이고 고상한 생활기풍이 차 넘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동맹원들이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참전자, 승리자의 영예를 높이떨치게 하여야 한다.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

일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백두산천출위인들의 필생의 념원이었으며 우리 대에 맡겨진 최대의 민족사적과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쳐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으셨다. 오늘 불멸의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조국통일의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고 애국열의에 불타는 7천만 겨레가 있기에 민족의 세기적 속망은 머지않아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에 통일변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애국의지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당국에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시종일관 노력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시대의 흐름과 민심의 지향에 역행하여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북침전쟁책동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민족의 대국상을 외면하고 조의표시를 각방으로 방해해나선 남조선역적패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행위는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에서 집권세력은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대상으로 되고 있다.

지난해의 정세흐름은 자주통일, 평화변영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 수 없으며 반통일세력은 반드시 패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확증해 주었다.

올해는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발표 5돐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

의 문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민족자주, 민족우선의 입장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6.15통일시대의 요구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이 제일이며 민족자주의 입장에 철저히 설 때 못해 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10.4선언발표 5돐을 맞으며 북남선언들을 적극 지지하고 리행하려는 분위기가 온 강토에 차 넘치게 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외세와 공조하여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사대매국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대중적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은 조국통일의 전제이고 담보이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복종시켜야 한다.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동족대결책동을 견결히 반대 배격하여야 한다.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고 북남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반통일책동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적패당의 반통일적인 동족적대정책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내외호전광들의 전쟁책동을 저지 파탄시키는 것은 현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온 민족은 반전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무력증강, 전쟁연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려야 한다. 내외호전세력의 군사적 결탁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이며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새로운 주체100년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애국투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 국제적환경은 전례없이 복잡하였지만 우리 혁명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어주신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장구한 기간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여 선군조선의 국제적 지위와 존엄을 비상이 높이고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정의의 수호자이시였다. 지난해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진행하신 중국과 로씨야에 대한 력사적 방문은 세계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사회주의한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당의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을 변함없이 견지하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들어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비장한 각오와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다.

새로운 대진군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마음속에는 오늘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신다. 희세의 명장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고 향도의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무적필승의 혁명강군과 일심단결의 천만대오가 있기에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의 발걸음은 선군승리의 힘찬 발걸음, 강성부흥의 우람찬 발걸음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것이다.

모두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강성번영의 년대, 자랑스러운 승리의 년대로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끝)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 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통일정세분석 2012-01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전화 : 02-901-2525 팩스 : 02-901-2544
인쇄처	(주)세원문화사 전화 : 02-2265-1141
인쇄일	2012년 1월
발행일	2012년 1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 900-4300(代)